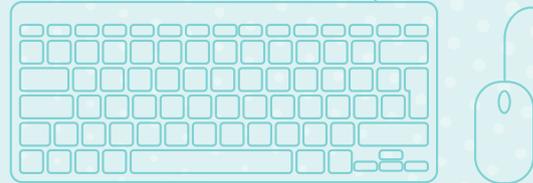


# KIHA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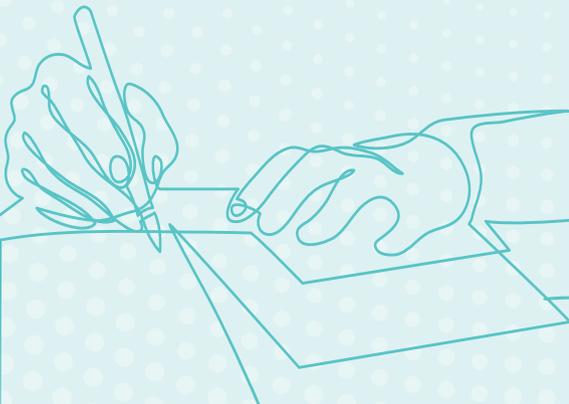
## 2021 임금협약 체결

협회는 10월 28일, 본부 1층 회의실에서 2021 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임금협상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현장의 일선에서 임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를 해야한다는 것에 노사가 뜻을 같이 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2020년 기본급어의 6% 인상과 더불어 노·사 상생지원금과 코로나 극복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하였다.



## 백헌기 회장, 중대재해 대응 변호사들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의

백헌기 회장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태평양 26층 회의실 및 ZOOM 화상회의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강의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현재 변호사 450명을 포함하여 외국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약 700여 명의 전문가와 600여 명의 직원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협회-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MOU 체결 안전·보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협회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과 10월 2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태평양 26층 회의실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 이상태 경영총괄이사, 김홍갑 사업총괄이사, 태평양 한이봉 대표변호사와 김성진 중대재해 대응본부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준법 관련 자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MOU는 기업에게 보다 양질의 산업안전보건 준법 자문과 전문 안전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태평양과 협회는 MOU를 계기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및 시민안전 협력사업 등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 강원산업보건센터-강원도자동차검사 정비사업조합 춘천권역 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강원산업보건센터 서용덕 대리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원산업보건센터는 강원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하 정비사업조합) 춘천권역 협의회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10월 14일 오후 4시 30분,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원산업보건센터 9층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대한산업보건협회의 강현지 센터장, 유재모 팀장과 강원도 정비사업조합 춘천권역 협의회 서동석 회장 등 협의회 간부가 참석했다.

본 협약으로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정보교류 및 보건관리 업무의 협조를 통한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 백헌기 회장 천안산업보건센터 방문, 간담회를 통한 협회 비전 공유

천안산업보건센터 이수빈 사내기자

지난 9월 30일, 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이 천안 센터를 방문, 직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백헌기 회장은 유독 심했던 무더위로 고생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었을 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달했다. 지난해 회장 취임 후 전국센터를 순회하면서 나왔던 직원들의 고충과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왔는지 천안센터 직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로, 부족했던 대내외 소통 및 협회 홍보 방안으로 카카오톡 플러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홍보를 시작했다. 아울러 매달 첫 주, 줌(ZOOM)을 활용해 기관장 회의를 진행하였고, 월간 「산업보건」지의 효용성 검토에 따른 내용 개편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 센터별 사내기자단을 만들고 협회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업데이트했다. 한마음혈액원 CI를 변경하고, MSDS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협회의 전문성을 높였다. 앞으로 TV나 라디오 등을 통한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제안했던 전산문제의 개편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이다. 60년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산개편 작업을 2022년 3월까지 1차 완료로 목표로 하고 있다. 세 번째는 빠르게 변하는 산업현장에 발맞추어 직원들의 전문화 교육 및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 부

분이었다. 이를 위해 자격증 시험 비용을 1인당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오송 부지로 본부를 이전 후에는 교육장을 신설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화 교육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협회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의 숙지 및 기업들의 자체적인 안전보건진단 효용성 증대를 위해 컨설팅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기됐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과 관련, 자체 조사 정리한 부분도 공유했다. 제기된 사건들이 과거의 사건들이지만, 관련 문제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감성적인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임을 알리며 직원들의 의식변화를 강조했다. 이후 천안센터 직원들은 전문화 교육, 공채 시스템의 변화, 지역 본부별 인력의 표준화와 성과에 대한 보상 등 다양한 내용을 건의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백헌기 회장은 “코로나19로 직원들과의 식사는 어렵지만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얼굴을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좋았다”며 “자부심을 갖고 최고의 협회를 만들자”며 격려했다. 직원들은 “회장님이 직접 협회의 비전을 공유해주는 이런 자리가 많아지면 좋겠다”고 전했다.